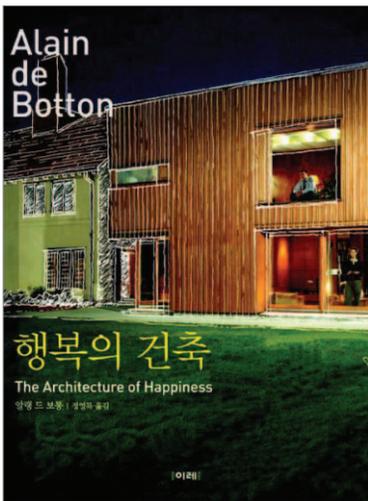


행복의 건축(The Architecture of Happiness)

사람(이용자)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리저리하다고 단정하고 단순한 관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건축사들의 문제로 인한 심리 파악의 실패, 이로 인한 '나쁜 건축'의 탄생, 그리고 이와 반대로 겸손과 끈기가 결합되어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했던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환경의 창조 역시 우리 건축사들의 몫임을 알려주고 있다.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지음 / 정영목 옮김 / 302쪽 / 14,000원 / 이레

지난 6월 말 일간지 J신문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어느 심포지움에 참가, 건축 공간에 대하여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기고문이 실렸다. 도올 본인도 인정하듯이 그 글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매우 난해한 내용이었으며 과연 누구를 독자로 작성한 글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국내의 신문, 잡지에서 소개되는 기고문이나 사설 등의 경우 대부분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로 집필진이 구성되는데 이 분들이 작성한 기고문이나 사설을 보면 독자들의 눈높이보다 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집필되는 경향이 자주 보인다. 공적인 글을 쓰기 위하여 자신의 지식을 총 동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지적 역량을 외부에 과시

하는 듯한 언술은 독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고 본다.

오늘 소개하는 '행복의 건축'은 알랭 드 보통이 들려주는 건축 에세이다. 작가 특유의 놀라운 관찰력과 섬세함으로 여러 시대를 넘나들며 시대마다 유행했던 건축 양식과 건축사의 상상력과 디자인이 이루어낸 건물들을 소개시켜주며 진정한 행복의 건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독자들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건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이 그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느냐에 달려있으며, 멋진 외관과 현대적인 설비가 가득해도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공한 건축물은 아니라고 소개한다. 결국 건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했던 기억을, 앞으로의 추억을 담은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물이 너무 과장되거나 지나친 절제로 치우쳐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는 건물만이 아니라 거리 전체를 해치게 되고, 아름다운 건물이란 색채, 재질, 형태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우아미를 간직하게 되고 말 그대로의 행복한 건축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외에도 딱딱한 건축전문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축에 대한 계몽과 개인의 취향, 혼란과 질서, 규칙성(통일감), 복잡성(변화감, 다양성), 균형(중재), 우아함과 겸손함, 구조미, 컨텍스트(지역의 정신, 맥락) 등을 저자 특유의 유려한 문체로 설명하고 있다.

아웃사이더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분명하게 핵심을 볼 수 있다는 서평을 통해 필자가 접한 이 책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내용은 위대한 건축사(르 코르뷔지에)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빌라 사보야'와 '빛나는 도시' 계획안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통한 통렬한 비판은 당대 최고의 건축사는 물론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건축사들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 사람(이용자)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리저리하다고 단정하고 단순한 관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건축사들의 문제로 인한 심리 파악의 실패, 이로 인한 '나쁜 건축'의 탄생, 그리고 이와 반대로 겸손과 끈기가 결합되어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했던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환경의 창조 역시 우리 건축사들의 몫임을 알려주고 있다.

알랭 드 보통이 건축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는 에세이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폭넓은 지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완전히 소화되어 창작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할 만하지만(번역 상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문장에서의 조화롭지 못한 단절감과 계속되는 수동태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쉽게 읽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모처럼의 접근 기회가 상실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